신대배후단지 개발 본격화

순천시 민관공동 출자법인 설립 협약

4,130억원 들어 택지 299만㎡ 조성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로 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순천시는 지난 9일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참여할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순천시는 중흥·송촌·삼능건설 등과 신대지구 개발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신대개발(주)'이라는 민관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300억원 규모로 출범하게 될 신대개발(주)은 중흥건설 계열사 50%, 송촌·삼능 건설 40%, 순천레포츠 10% 등의 비율로 자본금을 출자하게 된다.

순천시는 법인 설립 이후 금융권 자금도 유치해 신대지구 편입부지 보상과 함께 오는 5월 공사에 들어가 2010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대배후단지 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신대배후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해룡면 신대리 일대는 지난 2004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토지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3월부터 토지보상작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가격 급등에 따른 보상비 추가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은 4천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9만7천㎡를 개발, 1만1천 세대 3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동계 수난사고 구조훈련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대장 서승호)가 지난 10·11일 이틀간 광주 염주체육관 다이빙풀장에서 동계 수난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대원들에게 새로운 구조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시민안전 시민 손으로

전남 안전생활실천聯 창립

전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18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참여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 안실련은 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교통사고, 화재, 가스, 전기 등 안전의식 부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시민의 힘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전남 안실련은 앞으로 학교와 산업체 등 정책 분야별 안전운동을 전개하게 되며 주승용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정표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장, 박석호 목포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3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될 신대배후단지. 4천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0년까지 조성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전남도 이전 확정 해양경찰학교 유치

여수-광양-목포 3파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전남도로 이전이 확정된 해양경찰학교의 입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치에 뛰어든 각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경찰학교 유치에는 도내 9개 시·군이 뛰어들어 한때 과열 조짐까지 보였으나 순천시가 사실상 유치를 포기해 여수와 광양, 목포시의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유력 후보지에 대한 전남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입지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과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 계류 등으로 미뤄졌던 입지 확정이 다음달 12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자체 일각에서는 전남 동부지역에 해양경찰학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 과열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이상 입지 선정 발표가 늦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학교는 20만평 규모에 교육시설 24개동과 테러방지훈련장, 해양오염방제훈련장, 사격장 등이 들어선다.

해양경찰학교는 2005년 기준 교육생 수가 6천명에 이르고 새 학교 입주 시기인 오는 2012년에는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시 '토요무대' 정례화

시립 국악단·합창단 등 진남문예회관 매주 공연

여수시가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보전을 위한 상설공연을 마련한다.

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인 '토요무대'를 상설 공연키로 했다.

참여단체는 시립예술단인 국악단과 합창단으로 무대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또 전남도 및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향토 민속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매주 테마를 갖고 열린다. 첫째 주는 시립국악단 주관으로 흥겨운 우리국악을 선 보이며 〈사진〉 두번째 주는 역시 시립국악단이 판소리와 무용을 무대에 올린다. 셋째 주는 시립합창단이 가곡이나 건전가요를 중심으로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주며, 넷째 주는 향토민속보존회가 향토민속극을 공연한다. 다섯번째 주는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이 합동으로 고전과 현대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하반기 착공

2010년까지 572억원 들여 2만t급 선석 2개 건설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공사가 올 하반기 착공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여천민자부두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보조금 153억원을 포함해 572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 2만t급 선석 2개의 일반부두를 건설키로 했다.

여천민자부두 주식회사는 상반기 중 부두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에 착공, 2010년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천민자부두 주식회사는 부두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1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민자로 조달해 부두를 건설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34년간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다.

오는 2010년께 부두시설이 완공되면 여천일반부두는 연간 일반화물 104만3천t과 컨테이너 화물 7만3천 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여천일반부두를 민간투자로 건설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걸쳐 여천민자부두 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안을 확정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작년 전남 동부권 해상관광객 증가

271만명 오동도 등 찾아 전년비 23만명이나 늘어

지난해 여수 오동도와 거문도 등 전남 동부권 바다를 찾은 여객선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운항중인 여객선과 유선, 도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71만7천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48만9천147명이 비해 23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수를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객들이 증가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